

## [보도자료] 모든 기록을 경신한 쿠팡플레이 시리즈 '가족계획', 정주행 유발 흥행 포인트 3종!

2024. 12. 26.

역대 쿠팡플레이 시리즈의 기록을 새로 쓰며 승승장구 중인 '가족계획'이 마지막 화 공개를 앞두고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흥행 포인트를 공개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가족계획'의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되기 전, 정주행이 필수인 '가족계획'만의 매력을 짚어본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가족계획'(크리에이터: 김정민 | 감독: 김곡, 김선 | 출연: 배두나, 류승범, 백윤식, 로몬, 이수현 | 제공: 쿠팡플레이 | 제작: 키이스트, 오디너리잼, 몬스터유니온, 보더리스필름)은 기억을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엄마가 가족들과 합심하여 악당들에게 지옥을 선사하는 이야기.





첫 번째 포인트는 단연 독보적인 세계관과 예측할 수 없는 반전 스토리텔링이다. 어린 시절의 특교대 생활부터 현재까지, 매회마다 양파 껍질 벗겨지듯 드러나는 비밀들이 보는 시청자들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든다. “시청자들에게 맴고 짜고 단거를 선사한다”(디지털조선일보), “시간을 순간 삭제시킨다. 배우들의 연기력과 빠져들 수밖에 없는 스토리 라인, 리얼하고 자연스러운 연출이 압권이다”(iMBC) 등 언론의 호평이 이어지고 시청자들 또한 “어떻게 이런 신박한 스토리를 만들지?”, “스토리가 너무 잘 짜여 있어서 물입감이 좋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고 뻘한 내용이 아니다. 올해 본 것 중 최고” 등 극찬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범죄 스릴러 장르와 함께 곳곳에 배치된 블랙 코미디 요소가 ‘가족계획’만의 묘미를 잘 살리며 전에 없던 색다른 재미에 연일 시즌2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츰츰한 스토리를 더욱 몰입시키는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와 케미스트리다. 배두나, 류승범, 백윤식, 로몬, 이수현은 극 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수상한 가족을 열연, 저마다 개성 강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며 어딘가 어색하지만 묘하게 어울리는 전대미문 가족 케미스트리를 완성했다. 명품 연기력으로 극 중 극악무도한 악당 캐릭터를 소화한 김국희, 유승목, 곽자형, 배재영, 윤가이 등 여러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을 보는 재미도 탁월하다. 현재 5화까지 정주행한 시청자들은 '가족계획'의 스토리나 몰입감 외에도 매회 배우들의 강렬한 연기를 시청 포인트로 손꼽으며 "일단 다들 연기가 미침", "연기보고 소름", "다들 아우라가 장난 아님", "진짜 연기 장난 없으시네", "주조연 포함 구멍 없는 연기력. 제발 연기 좀 살살해주세요" 등의 입소문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 포인트는 매회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통쾌한 카타르시스다.** ‘가족계획’을 구상한 김정민 크리에이터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함께 극악무도한 악당들을 처단하는 통쾌한 이야기”라고 설명하며 현실 범죄를 모티브로 극의 사건들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잔혹한 현실 범죄들이 리얼하게 표현되어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하기도 하고 이를 처단하는 영수네 가족의 자비 없는 응징 퍼레이드가 속 시원한 쾌감을 선사한다. 또한 전에 볼 수 없던 ‘브레인 해킹’이라는 독특한 소재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와 눈을 땔 수 없는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렇듯 ‘가족계획’은 독보적인 세계관과 배우들의 명연기 퍼레이드 그리고 범접불가한 쾌감을 선사해 매회 시청자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스토리의 엔딩만 남겨둔 ‘가족계획’ 열풍에 탑승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사상 역대 최고 시청량, 시청자 수로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는 ‘가족계획’은 오는 27일(금) 저녁 8시, 마지막 6화가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